

# 산림청, 민·관 협력으로 해안방재림 조성한다

- 환경재단과 숲벨트 조성해 모래날림·해일 막고 생활환경 개선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협력해 2026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 해안방재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해안방재림이란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날림, 염분날림, 해일, 풍랑 등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지역에 조성하는 수림대(樹林帶)를 뜻한다. 이 지역에 해안방재림이 조성될 경우 강한 해풍과 모래날림 등으로부터 주변 산업단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삭막한 산업단지에 녹색 숲이 조성됨에 따라 해안 경관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환경재단, 경상북도, 포항시와 함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주변 해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재단은 사회공헌 기금인 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의 후원을 받아 올해 나무가 자라기 유리한 토양으로 개량 등을 시행하고, 내년 봄철에 약 1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해안방재림을 조성한다.

해안방재림 조성에 있어 성공적인 민·관 협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과 경상북도는 행정절차와 조성기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해 예방에 있어 숲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해안방재림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책임자	과 장	최현수 (042-481-4270)
		담당자	사무관	이진호 (042-481-4274)